

ECONOMY

2025년 3월 7일 금요일

금호타이어, 고무바퀴로 달리는 경전철 제품 개발

광양경제청 '인터배터리' 참가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활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이며 국내외 680여 개 기업 7만 5000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청은 이번 전시회에서 씨아이에스 케미칼, 매그나텍, 티디엘, EVE에너지, BYD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맞춤형 1대 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과 대송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지난해 광양국가산단(제철소 동호안), 세풍산단, 울촌1산단 등 총 153만㎡가 이차전지 기술향진특구로 2년 간 연장되면서 법안세 감면, 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구축이 한층 원활하게 됐다.

구종곤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투자 매력력을 적극 알리고 기술향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

AGT 전용 타이어 의정부 경전철 노선에 적용

(자동 안내 궤도차량)

KC 인증...소음·진동 적고 운영 효율성 높여

금호타이어는 자동 안내 궤도차량(AGT) 전용 타이어 모니터링 제품의 개발을 마치고 이를 경기 의정부 경전철(U-LINE) 노선에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AGT 철도 차량은 전용 궤도 위를 달리는 소형 무인 열차로, 국내에서는 고무 타이어로 된 바퀴를 장착한 고무 차륜형 경전철이 운행하고 있다.

고무 차륜형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 등에 비해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 및 센서 플랫폼 기업 코아칩스와 협력해 모니터링용 센서 모듈과 수신 장치를 개발했다. 이후 노선 테스트를 거쳐 국가인증을 통과했다.

센서 모듈은 타이어와 휠 내부에 장착돼 주행 중 공기압·온도를 실시간 전송한다. 수신 장치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타이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에 기반한 이 장치는 AGT철도차량 유지보수 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정보 수집을 통해 열차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준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기존의 버스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AGT 철도 차량 등의 분야로 기술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며 "타이어 특성에 맞춘 진동과 하중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효율성 및 타이어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기관들과 협업을 국내의 시장에 본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시-AI기업들, 맞춤형 반도체 개발 총력

광주시와 광주로온 AI(인공지능) 기업들이 항토기업들과 협력해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형 AI 솔루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벨리 육성사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광주시가 유치한 팰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AI 반도체 기술을 지역 수요기업 제품에 적용, 새로운 'AI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광주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한다. 광주로 이전한 팰리스



광주시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벨리 육성사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리시기업인 ㈜에이뷰저, ㈜모빌링크, 수퍼게이트㈜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AI반도체 제품을 소개하고, 지역 수요

기업인 엔에이치네트웍스, ㈜조그린에이, 닥터케이헬스케어, ㈜알파스, 두영실업, 인트폴로우, ㈜위치

김대중센터서 기술설명회...팰리스기업 등 참여 엔에이치네트웍스 등 수요 기업 7개사와 협력

스 등은 팰리스기업의 AI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나선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7월부터 팀테크 스케일업벨리 육성사업으로 지역 기업들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화재예측 솔루션', '반려동물케어 AI 솔루션', '비대면 축산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해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CES 2025'에서 엔지니어링 샘플(ES)을 선보였던 광주 이전 팰리스기업 2호인 ㈜에이뷰저의 '광주형 AI 반도체 (Aim-GJ-1)'와 같은 'AI 솔루션 개발'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팰리스기업들의 반도체 기

술 실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반도체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시는 AI 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AI 대표 도시 광주에서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서비스

- 아침체조 (매일)
- 웃음치료 (외부강사)
- 간호사 케어
- 신속 고급 실내
- 음악(외부강사 초빙)
- 물리치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GGM 또 부분파업...“일방적 증산” 반발

차체공장 UPH 상황·조합원 차별 등 주장 시측 “상생협의회의 협의...강제제한 없어”

금속노조 광주로분회모터스지회(6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시측이 노조 간부 징계, 조합원 차별, 일방적인 차체공장의 UPH(시간당 생산대수) 상황조정 등으로 조합원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민정 중재 기간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려 했으나, 시측의 노조 탄압과 조합원 차별이 계속되면서 추가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조합 활동을 막

기 위해 노조 간부 징계를 추진하고, 사내 벽보·현수막까지 무단 철거하는 등 노조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UPH 상황 조정(28→29대)을 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로 로분회모터스의 편성효율(생산성과 노동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은 이미 기아차나 현대차보다 25~30% 높은 수준으로 국내 완성차 공장 중 가장 높은 노동 강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 실시한 4시간 부분파업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고소·징계, 파업 참여율 높은 부서 조합원의 강제 전한 배치, 일본 완성차 공장 견학 연수 대상 선정에서의 차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측에 경고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상생협의회에 UPH 증가 필요를 설명하고 인원 증원과 일정에 대해 협의 동의했다”면서 “파업 참여율이 높은 조합원의 강제 전한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연수의 경우 지난해 우수사원을 중심으로 선발했으며, 1차 연수 때 조합원이 30% 포함됐다고 맞섰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대촌농협, 자재사업 연도대상 ‘최우수상’

가격 안정화·농업인 실익 증대 기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농협 자재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촌농협이 2024년 농협 자재사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농협 자재사업 연도대상'은 영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계통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한 우수농·축협을 선발·시상하

는 제도다. 대촌농협은 지난해 자재센터 현대화 사업을 완료해 지역농업인의 구매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 민간 판매처의 과다한 유통이윤 견제, 영농철 자재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계통구매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자재 구매 편의 향상과 자재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총, 회원 기업 성장 지원 본격화

광주경영자총합회가 회원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6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회원 기업 성장 지원은 모두 6개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고용창출 30명을 목표로 일자리도장과 창출 150명을 목표로 기업 고고 프로그램(공동이용 시설), 근로복지 지원(주거비 월세, 건강검진) 등 기존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완

화 및 안정적인 고용 구조 구축이 골자다.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사업'은 교육 인력 1000명을 목표로 청년 천화 조직문화개선 프로그램과 직장 적응 은보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북구 굿잡 매칭 프로젝트사업'은 고용 창출 150명을 목표로 기업 고고 프로그램, 기업탐색 프로그램, 위라벨 기업인증 월세, 건강검진) 등 기존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완

시스템을 마련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은 배정 목표가 650명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알선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유도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중장년 내일센터사업'은 취업인원 목표가 1611명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인 구직 매칭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 및 재교육,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제공 및 재직자, 퇴직 예정자 전직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